

#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의 의미 재고(再考)\*

황병익\*

## <차례>

1. 들어가기
2. <도산십이곡>의 구절 재해석
3. <도산십이곡>의 의미와 성격
4. 마무리

## <국문초록>

그동안 피상적으로 읽은 <도산십이곡>의 구절구절을 다시 살펴본 결과, <도산십이곡>의 언지3의 “순풍(淳風)이 죽다 흥·니 진실로 거즈마리”는 자고로 선비란 벼슬과 관직이 높아지는 것을 다룰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학문과 성인의 발자취를 따라야 한다는 당위와 지향점을 제시한 것이고, 언지4의 “이등에 피미일인(彼美一人)를 더욱 닳디 못하애”는 주(周) 문왕(文王) 시대를 이상 모델로 삼아, 군주가 어질고 덕을 갖추어 만백성과 신하들의 두터운 신망을 얻고 군주와 신하가 서로 의기를 투합해 화합을 이루어 갔으면 하는 정치적 이상과 소망을 담고 있다. 언지6의 “흐몰며 어약연비(魚躍鳶飛) 운영천광(雲影天光)이아 어니 그지 이슬고”는 천지자연, 우주의 오묘한 이치와 신비한 근원을 알 수 없으니, 끊임없는 탐구와 성찰을 통해 그 도를 터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당위를 강조한 말이다.

<도산십이곡> 언학2의 “우리는 이목총명남자(耳目聰明男子)로 농고(龔瞽) 거·디디 마로리”가 있다. 소옹(邵雍)의 『격양집(擊壤集)』에 따르면, ‘이목총

\* 이 논문은 2011년도 경성대학교 교내연구과제(2011612) 지원을 받았습니다.

\*\* 경성대학교

명남자(耳目聰明男子)’란 “오묘한 지식 세계를 깨달을 수 있는 조그만 재주를 부여받은 사람”이란 뜻으로, 지식인으로서의 책무와 사명감을 강조한 말이다. 그러므로 ‘농고기·디 마로리’는 꾸준한 학문을 통하여 귀를 밝게 하고 눈을 밝게 하지 못한다면 눈 먼 소경과 귀가 먼 귀머거리처럼 될 것이니 자고로 선비란 이를 경계해야 한다는 말이다. 배움에 임하는 자는 끊임없는 탐구와 연마를 통해 진리를 추구해야 한다는 당위성, 항상 자신의 지식 세계를 밝고 지혜롭게 해야 함을 강조한 말이다. 언학5 “우리도 그치디마라 만고상청(萬古常靑)호리라”는 일월성신이나 계절, 천지자연이 변하지 않는 속성을 유지해 나가는 것처럼, 인간도 모름지기 순수하게 부여받은 선한 마음의 본체를 유지하고 추구해야 함을 강조한 말이다.

이에 <도산십이곡> 전6곡 언지는 자연 친화적인 삶 속에서 학문과 자기수양에 힘쓰면서도 덕치나 군신의 조화 등 정치적 이상을 꿈꾸고 오묘한 이치와 도(道)를 위해 정진하는 선비의 지향점을 제시하고, 선비란 벼슬이 앞서가고 관직이 높아지는 것보다는 학문 세계를 깊게 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당위와 지향을 담고 있다. <도산십이곡> 후6곡 ‘언학(言學)’은 “배움·지혜로움을 향하는 사람이 반드시 가져야 하는 자세, 즉, 선한 본성, 지혜와 깨달음을 추구하는 태도, 꾸준한 정진” 등 학문을 하는 지식인으로서 반드시 견지해야 할 책무와 사명감을 강조하고 있다.

핵심어 : 퇴계, <도산십이곡>, 언지(言志), 가져야할 뜻, 언학(言學), 배우는 태도, 순풍(淳風), 학문, 피미일인(彼美一人), 문왕(文王), 이목총명남자(耳目聰明男子), 지혜, 만고상청(萬古常靑), 본연지성(本然之性), 선비의 길

## 1. 들어가기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은 전(前)6곡 언지(言志)와 후(後)6곡 언학(言學)으로 나뉘는데, 그간 “언지(言志)는 천석고황(泉石膏肓)의 강호은거(江湖隱居)를 읊었고, 언학(言學)은 학문과 수양을 통해 성정을 바로잡는 일을 읊었다.”<sup>1)</sup>는 해설이 일반화되어 있다. <도산십이곡>을 퇴계의 사상이나 이념을 자연에 빗대어 관념적으로 읊은 노래로 인식하는 데는 논자들 간에 큰 견해차가 없다.

그러나 퇴계가 쓴 <도산십이곡발(陶山十二曲跋)>과 <도산잡영병기(陶山雜詠并記)>의 해석을 근거로 <도산십이곡>이 당대의 노래가 지닌 문제점을 극복하려는 개혁적 시각에서 창작되었다든지, 온유둔후(溫柔敦厚)의 시정신과 감발융통(感發融通)하고 탕척비린(蕩滌鄙吝)하는 노래의 성정순화 기능을 적극적으로 발현한 작품이라든지, 자연을 도의 묘체(妙體)로 보거나 심성 수양의 장으로 인식하는 철저한 재도적(載道的) 문학관의 산물로 규정하는 결론이 거의 한결같다는 문제를<sup>2)</sup> 전제로, <도산십이곡>은 “벼슬을 버리고 도산에 들어 자연 속에서 펼치고자 한 퇴계의 꿈을 담은 작품”<sup>3)</sup>인데, “언지(言志)를 통해 물러남의 길을 택하여 도산의 자연과 교감하면서 느끼는 자신의 개인적 감회와 뜻을 노래하고 있고, 언학(言學)을 통해서는 도산서당을 짓고 학문과 교육에 전념하려는 자신의 뜻을 배움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는 형식으로 노래하고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여 <도산십이곡> 해석의 지평을 넓히기도 하였다.

<도산십이곡>은 중등 교과서뿐만 아니라 생활 현장에서도 자주 논급되는 작품이므로 구절구절의 진의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그 결과를 통해

1) 李東英, 도산십이곡,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840쪽; 국어국문학 편찬위원회 편, 『國語國文學資料辭典』, 한국사전연구사, 1995, 791쪽.

2) 성기옥, 「도산십이곡의 재해석」, 『震檀學報』91, 震檀學會, 2001, 247~248쪽.

3) 성기옥, 「도산십이곡의 구조와 의미」, 『韓國詩歌研究』11, 韓國詩歌學會, 2002, 226쪽.

작품 전체의 의미를 되짚으려는 노력은 앞으로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본고는 『퇴계집』 각권이나 『주자전서』, 『모시집해(毛詩集解)』 등의 문헌을 참고하여, 그동안 피상적으로 풀이하거나 간과해왔던 전6곡의 ‘순풍(淳風)이 죽다 흥·니 진실로 거즈마리~’, ‘이등애 피미일인(彼美一人)를 더욱 낫디 못흐애~’, 후6곡 가운데 ‘우리니·니 이목총명남자(耳目聰明男子)로 농고(龕瞽)기·디 마로리’, “우리도 그치디마라 만고상청(萬古常靑)호리라” 등을 실증적이고 객관적으로 살핀 후, 그 결과를 기존의 해석에 대입하고 종합하여 <도산십이곡> 전체의 주제와 작품 성격을 재점검해 보고자 한다.

## 2. <도산십이곡>의 구절 재해석

2.1 “순풍(淳風)이 죽다 흥·니 진실로 거즈마리/인성이 어디다 흥·니 진실로 올흥·니 마리/천하에 허다영재(許多英才)를 소겨 말숨흥·르가” (언지3)

위의 구절 가운데 “순풍(淳風)이 죽다”를 “불가(佛家)와 도가(道家)의 자연관을 지적한 것”으로<sup>4)</sup> 보기도 하고, 예전과 비교해 순풍이 없어졌다는 『자치통감』 양기(梁紀)의 기록에서 ‘순풍’이라는 말이 비롯했다며 “현대의 우리도 순박하지 못한 현실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다는 범박한 의미”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다음 자료는 이 구절의 풀이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한다.

(1) “성현들이 교화를 말아, 학교를 세우고 인재를 기르니, 마음엔 밝은 가르침이 남고, 착한 근본을 깊이 기를 수 있었다. 타고난 본성을 소상히 기록

4) 崔珍源, 「陶山十二曲攷(3)」, 『人文科學』14, 成均館大學校 人文科學研究所, 1985, 9쪽.

하고, 인문(人文) 또한 활짝 열었는데, 어찌하여 백 대가 지난 후엔 학문이 끊기고 교양이 어그러졌다 하는가. 여럿이 모여 화려한 글 솜씨나 뽑내고, 벼슬이 앞서고 관직 높은 것을 다투는구나. 순박한 풍속 망하고 사라져, 이 어지러움을 어찌할 것인가.”<sup>5)</sup>

위는 주희(朱熹)의 글이다. 여기서는 선비들이 화려한 문장 솜씨를 뽑내거나 벼슬을 갖고 높은 관직을 가지는 데만 몰두하기 때문에 순박한 풍속이 죽어간다고 개탄하고 있다. 주세붕도 『죽계지』 <재거감흥이십수(齋居感興 二十首) 주희(朱熹)>에서<sup>6)</sup> 주희의 이 글을 되새기고 있다. 미수(眉叟) 허목(許穆, 1595~1682)도 “순박한 풍속 이미 죽어 성인 시대 멀어지니,/후대 사람 문장 다듬다 인문을 망쳤네./사마천 남긴 사기 뜻 이미 거칠거늘,/스스로 역사에 부쳤으니 참으로 망령되네.”에서<sup>7)</sup> 선비들의 좋은 풍속이 무너져 성인의 시대가 멀어져가고 있다고 안타까워하고 있다. 퇴계도 “옛 학문이 못 전하니 모두 말세의 선비요,/순풍(淳風)이 남은 곳은 다만 농부뿐일세./아이 불러 연거푸 술을 드리며, 한평생 쌓인 근심을 풀어보련다.”에<sup>8)</sup> 옛 학문이 전하지 못하는 풍속에 대한 아쉬움을 담았다.

(2) 사성(士誠)이, “경전(經典) 익힘을 과거 불 사람의 업으로 삼으니, 혹 학문을 하는 데에 해로움은 없을지요?” 라고 물었다.

선생께서 답하기를, “국가에서 과거를 설치한 것이 어찌 선비들이 학문하지 않기를 바라서이겠는가? 안팎과 경중에 절로 분별이 있으니, 만약 이에서

5) “聖人司教化 鬻序育羣材 因心有明訓 善端得深培 天叙既昭陳 人文亦褰開 云何百代下 學絕教養乖 羣居競葩藻 爭先冠倫魁 淳風反淪喪 擾擾胡爲哉”(『御纂朱子全書』卷 66. 齋居感興 20首).

6) 聖人司教化 鬻序育羣材 因心有明訓 善端得深培 天叙既昭陳 人文亦褰開 云何百代下 學絕教養乖 羣居競葩藻 爭先冠倫魁 淳風反淪喪 擾擾胡爲哉”(『竹溪志』卷5 雜錄, 서재에서 감회에 짓어 20수 [齋居感興 二十首] 주희(朱熹)).

7) “淳風已死聖人遠 後來雕琢泯人文 馬遷餘史意已荒 自附春秋眞妄云”(許穆, 和古亭丈人古詩七韻, 『眉叟記言』別集 卷1 ; 『文叢』98, 500쪽).

8) “古學未傳皆末士 淳風猶在祗村農 呼兒且進杯中物 澆我平生髮積曾”(李滉, 三月三日雨中寓感, 『退溪集』卷1 ; 『文叢』29, 72쪽) 본고에서 인용한 『退溪集』은 퇴계학연구원에서 간행한 국역 『退溪全書』를 근간으로, 『韓國文集叢刊』29-30-31권을 살펴 필요한 부분수정을 거쳤다.

판단이 분명할 수 있다면 성인의 경전(經典)을 외워 꿰는 것이라고 학문이 아니겠는가?”<sup>9)</sup>

위의 글을 보면, 퇴계 또한 경전을 외우고 익혀 과거 시험을 치르는 것을 학문의 범주에서 아예 제외하진 않았음을 알 수 있다.

(3) 서실에서 퇴계선생을 모실 적에 퇴계 선생께서 앉아있는 여러 사람에게 말하기를, “유학을 닦는 사람이란 남다르고 특별하다. 공(工)이나 문학예술에 힘쓰는 유학이 아니고, 과거에서 급제나 하려는 일도 유학이 아니다.” 하셨다. 이로 인해 탄식하시기를, 세상의 많은 영재들이 속된 학문에 허덕이고 있으니, 다시 어떤 사람이 있어서 이 과거라는 요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sup>10)</sup>

그러나 (3)에는 젊은 학자들이 과거 급제나 출세, 형식적인 경쟁에 매달리지 않고 진정한 학문과 인격의 수양에 골몰하기를 바라는 퇴계의 마음이 담겨 있다. 출세나 과시를 위한 요식적 공부보다는 진정한 학문, 깊은 유학에 몰두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로써 어찌 적절한 인재 늘릴까./학문에 능통하면 모든 이치 함께 풀리리./어찌타 이 세상에 아름다운 영재들이/이에 한번 떨어지면 헤어날 줄 모르는가.”<sup>11)</sup> 과거만으로는 참된 학문을 하는 인재를 늘려갈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순풍(淳風)이 죽다 흥·니 진실로 거즈마리’는 “자고로 선비란 여럿이 모여 앉아 화려한 글 솜씨나 뽐내고, 벼슬이 앞서가고 관직이 높아지는 것을 다룰 것이 아니라 성인의 말씀을 이어 진정한 학문을 해야 한다는 당위와 지향

9) “土誠問 治經爲學子業 或無害於爲學耶 先生曰 國家設科 豈欲士之不爲學耶 內外輕重 自有分別 若於此 判斷得分明 則誦貫聖經 獨非爲學耶 -鄭土誠”(權斗經, 論科舉之弊, 『退溪先生言行錄』卷5).

10) “侍退溪先生于書齋 退溪先生謂在座諸人曰 儒家意味自別 工文藝非儒也 取科第非儒也 因歎曰 世間許多英才 混汨俗學 更有甚人 能得脫此科臼也”(琴輔, 梅軒先生年譜 穆宗 隆慶元年丁卯(1567), 『梅軒集』; 『文叢』續3, 85쪽).

11) “科目焉能累得人 學通諸理可兼伸 如何滿世英才美 一落終身未轉身”(李滉, 歲終 琴聞遠琴嬾之金子厚 將歸 示詩相勉 亦以自警 警安道 三首 중 2首, 『退溪集』卷2; 『文叢』29, 96쪽).

점”을 제시하고 있다. <도산십이곡>에서는 “순풍(淳風)이 죽다 흥·니 진실로 거즈마리”라 했으니, 학문보다 출세나 과거를 지향하는 현실을 개탄보다는 경계와 반성의 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4) 맹자가 말하였다. “물은 진실로 동서의 분별이 없고 상하의 분별도 없다 말인가? 인성(人性)의 선함은 물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과 같으니, 사람도 선하지 아니한 자가 없고 물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것이 없다. 물은 진실로 동서의 분별이 없지만 어찌 상하의 분별이 없겠는가?”라고 한 것이다. 성은 바로 천리(天理)이니 불선(不善)함이 있지 않다.<sup>12)</sup>

(5) 맹자가 말하기를, 인간의 본성을 보면 선하다 할 수 있으니 이것이 바로 내가 말하는 선(善)이다. 정(情)은 성(性)이 동한 것이다. 사람의 정은 본디 선하다 할 수 있고, 악하다 할 수 없으니 성이 본래 선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측은지심은 누구에게나 있고, 수오지심도 누구에게나 있고, 공경지심도 누구나 가지고, 시비지심도 누구에게나 있다. 측은지심은 인(仁)이요, 수오지심은 의(義)요, 공경지심은 예(禮)요, 시비지심은 지(智)이다. 이들 인의예지는 바깥에서 내게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내게 본디부터 있던 것들이다. 다만 생각지 않았을 뿐이다.<sup>13)</sup>

이어지는 “인성(人性)이 어디다 흥·니 진실로 올흥·니 마리”는 앞 구절의 전제 위에, “성(性)은 바로 천리(天理)이니 불선(不善)함이 있지 않다”, “사람의 정은 본디 선하다 할 수 있고, 악하다 할 수 없으니 성이 본래 선하다”는 맹자의 성선성(性善說)을 엮고 있다. 맹자의 성선설을 지지하면서, 세상의 풍속을 출세지향보다는 타고난 바른 인성을 가다듬는 방향으로 이끌려는 가르침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홍대용(洪大容,

12) “孟子曰 水信無分於東西 無分於上下乎 人性之善也 猶水之就下也 人無有不善 水無有不下 言水誠不分東西矣 然豈不分上下乎 性即天理 未有不善者也”(『孟子』 告子章句 上).

13) “孟子曰 乃若其情則可以爲善矣 乃所謂善也 情者 性之動也 人之情 本但可以爲善而不可以爲惡 則性之本善 可知矣 … 惻隱之心 人皆有之 羞惡之心 人皆有之 恭敬之心 人皆有之 是非之心 人皆有之 惻隱之心 仁也 羞惡之心 義也 恭敬之心 禮也 是非之心 智也 仁義禮智非由外鑠我也 我固有之也 弗思耳矣”(『孟子』 告子章句 上).

1731~1783)도 “지금 학자들은 입만 열면 곧 성선(性善)을 말하고, 말만 꺼내면 항상 정·주(程朱)를 들먹거린다.”하며<sup>14)</sup> 이 말을 행하지 않고 명예와 이욕에 빠진 자들을 비판했으니, 성선설은 꽤 오래 지속된 믿음이었다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부분의 “허다영재(許多英才)를 소겨 말숨ㅎ·르가”는 “홀로 앉아 술 한 잔을 들면서/도연명·위응물의 시 한가로이 읊조린다./숲 속의 시내 곁을 거니니,/마음이 밝아져 즐거움 그지없네./옛 성현 남기신 글 진실로 맛이 있고/이 내 병이 많으니 깊은 생각 두렵구나./미워함은 후세에까지 분노를 남길까봐/착한 이를 사모함에 때 놓칠까 두려하네./시냇물 소리 밤낮 끊이지 않고,/푸르른 저 산 빛은 예와 다름없네./무엇으로 내 마음 위안할까./옛 성인 남기신 말씀 나를 속이지 않으리라.”에서처럼<sup>15)</sup> 성현의 가르침은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신뢰를 담은 언술이다.

## 2.2 “이등애 피미일인(彼美一人)를 더욱 낫디 못ㅎ애”(언지4)

‘피미일인(彼美一人)’의 의미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뉜다. 먼저, ‘군주(왕)’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1) “도산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계시는 아름다운 한 분, 곧 왕을 지칭하고 있음은 누구나 잘 아는 바와 같다. 도산의 자연이 주는 고즈넉한 정취를 즐기면서도 왕을 잊지 못하는 사대부 지식인으로서의 겸선 의식에서 비롯하였다”<sup>16)</sup>

(2) “피미일인은 군주일 가능성을 가지며, 또 다른 의미를 가진 것으로 해

14) “今之學者 開口便說性善 恒言必稱程朱”(洪大容,贈周道以序,『湛軒書』內集 卷3;『文叢』248, 71~72쪽).

15) “獨酌一杯酒 閒詠陶韋詩 逍遙林澗中 曠然心樂之 古書誠有味 多病畏沈思 疾惡憤遺臭 慕善嗟後時 溪聲日夜流 山色古今茲 何以慰吾心 聖言不我欺”(李滉, 和陶集移居韻 二首,『退溪集』卷1;『文叢』29, 73쪽).

16) 成基玉, 「도산십이곡의 재해석」, 『震檀學報』91, 진단학회, 2001, 260쪽.

석, 천인합일적(天人合一的) 삶을 살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해 준 군주를 말한다.”<sup>17)</sup>

(3) “미인은 말할 것도 없이 군주를 가리키는 것이다. 아름다운 자연에 묻혀 살고 더욱 천석고황을 고쳐 무엇 하겠느냐고 말하던 사람이 어떻게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는가? 강호에 묻혀 있어도 이렇게 정치 현실에 대하여 끊임 없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sup>18)</sup>

요약하면 현재의 삶에 여유를 제공해 주신, 저 멀리 떨어진 곳에 계시는 ‘군주’를 어느 곳 어떤 상황에서도 잊지 못하는 신하의 마음을 담았다는 견해가 주를 이룬다.<sup>19)</sup>

둘째는 ‘주자’라는 견해이다. ‘피미일인’은 “내가 추구하는 가치, 또는 그 지향”이라는 주장을 펼친 정민, 이종묵의 말을 인용하면서도 ‘미인=주희’라 확정하기도 한다. 나아가 ‘미인’은 “학문과 관련된 사람, 천애(天涯)를 격해 있는 사람, 지금은 만나볼 수 없어 옥황상제 집에서나 만나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나와 좋았던 것이 같았던 사람, 나보다 그 길을 먼저 밟고 가서 내게 그 길을 일러주는 사람, 그 고인은 의심할 여지없이 ‘주자’라고 설명한다.”<sup>20)</sup> “퇴계에게 삶의 지표가 되었던 정자(程子), 주자(朱子)와 같은 송나라의 대표적 성리 학자처럼 완전한 인간”이라<sup>21)</sup> 하면서 ‘피미일인’을 퇴계가 삶과 학문의 좌표로 삼았던 ‘주자’라고 규정한다.

17) 全在康, 「도산십이곡의 理氣論의 根據와 內的 秩序 研究」, 『語文學』70, 한국어문학회, 2000, 230쪽.

18) 정재호, 『한국 시조 문학론』, 태학사, 1999, 98~100쪽.

19) “이황이 아무 왕이나 왕이기 때문에 연군지정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이황을 범속한 유학자로 오해하게 만든다. 또, 창작 당시의 임금인 ‘명종’을 더욱 잊지 못한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신연우, 「도산십이곡에의 미학적 접근」, 『고전문학연구』25, 한국고전문학회, 2004, 169~170쪽)라는 주장도 있지만, 이를 다시 뒤집어 “비록 그 대상이 명종은 아니더라도 당시의 사대부적 사고 질서에서 볼 때 아직은 군주로 봄이 적절하다.”는 주장도 있다.(김상진, 『16·17세기 시조의 동향과 경향』, 국학자료원, 2006, 68쪽).

20) 한형조, 앞의 논문, 171~172쪽.

21) 류해춘, 「도산십이곡과 어부사시사, 그 표현 의도와 수사학」, 『고시가연구』27, 한국고시가학회, 2011, 221쪽.

한편, 앞의 정민이나 이종목은 “난초와 구름을 통해 연상되는 어떤 구체적 인격 이상, 서정 자아가 추구하는 인격 이상은 내적인 자기완성을 통하여 천리(天理)와 혼연(渾然)한 일체에 이름으로써 일체의 구애로부터 해방된 자유의 존재”,<sup>22)</sup> 혹은 “이념적인 존재, 아름다운 한사람에게로 흥미 귀결”이라고<sup>23)</sup> 주장하기도 하고, ‘피미일인=군주’로 보는 견해에 반론을 제기하며 “이 임을 임금으로 보는 견해는 이 시의 진정성을 감소시킨다. 퇴계 당시의 임금은 사림이 상정하는 도학정치를 이룰 성군(聖君)과는 거리가 있다. 그러므로 피미일인은 자연의 조화에 대한 발견과 그 근원처에 대한 진지한 탐구”라고<sup>24)</sup> 결론짓기도 한다.

『맹자』에 “선(善)을 자기 몸에 소유하면 ‘신인(信人)’이라 하고, 충실함을 가지면 ‘미인(美人)’이라 하며, 충실함이 밝게 빛나면 대인(大人)이라 한다. 선을 힘써 행하여 가득하게 쌓이게 되면 그 안에 아름다움이 있어 자연히 밖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sup>25)</sup> 하였으니, <도산십이곡>의 ‘미인(美人)’을 범박하게 주석하면, “선(善)을 힘써 행해서 충실히 쌓은 자, 아름다운 덕성을 쌓아가는 사람”이라 이해할 수 있다.

(4) “익히고 익히어 막 춤을 추려는데, 해는 한낮이고 앞줄 첫머리에 서 있네. 허우대 덩그러니 궁전 뜰에서 춤을 추는데, 힘은 호랑이 같고 베를 짜듯 고삐 쥐었네. 왼손엔 피리 잡고 오른손엔 꿩 깃 잡고, 얼굴 붉게 상기되니 임금께서 잔 내리시네. 산에는 개암나무 진필엔 감초, 누구를 생각게 하는가? 서방의 미인이라네. 저 고운임은 서방의 사람이라네.”<sup>26)</sup>

22) 金昌沅, 「壺中天地의 園林美學과 陶山十二曲의 江湖」, 『국어국문학』118, 국어국문학회, 1997, 151쪽.

23) 金光淳, 「陶山十二曲에 나타난 自然觀과 人間觀」, 『퇴계학과 유교문화』22, 경북대학교 퇴계학연구소, 1994, 33쪽.

24) 신연우, 「도산십이곡에의 미학적 접근」, 『고전문학연구』25, 한국고전문학회, 2004, 169쪽.

25) “有諸己之謂信 充實之謂美 充實而有光輝之謂大, 力行其善 至於充滿而積實 則美在其中而無待於外矣”(『孟子』盡心 下).

26) “簡兮簡兮 方將萬舞 日之方中 在前上處 碩人僕僕 公庭萬舞 有力如虎 執轡如組 左手執籥 右手秉翟 赫如渥赭 公言錫爵 山有榛 隰有苓 云誰之思 西方美人 彼美人兮 西方之人兮”(金學主 譯, 『詩經』, 明文堂, 1984, 89~90쪽).

(5) 예로부터 임금에게 충성과 사랑을 바치는 자는 반드시 미인을 노래하며 그리워하였다. 『시경』에 이르기를, “저 미인이여, 서방 사람이다.[有美一人兮(彼美人兮)<sup>27)</sup> 西方之人兮]”라 하였는데, 이 시를 설명하는 자가 말하기를, “서방의 미인은 주나라 문왕이다.” 하였다. 굴원(屈原)과 경차(景差)의 일파도 미인을 노래하며 찬송한 시가 많았다.<sup>28)</sup>

그러나 위에서 서방의 미인, ‘저 미인’(美一人兮, 彼美人)으로 묘사한 사람은 주(周)의 문왕(文王)으로 구체화된다. (5)에는 “이 시를 설명하는 자가 말하기를, 서방의 미인은 주나라 문왕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6) 애쓰신 문왕이시여, 훌륭한 평판 그지없고,  
은혜내린 주나라, 빛나는구나, 문왕의 자손.  
문왕의 그 자손, 영원히 지탱하여,  
무릇 주나라 선비, 온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가!

화목한 문왕이시여, 공경함이 빛나도다.  
아름답다 천명이여, 은(殷)의 자손이여.  
은나라의 자손들, 그 찬란함 셀 수 없건만  
천명이 내리시어 주(周)에 귀속했도다.

주나라에 귀속했으니 천명은 바뀌어가는 것.  
은(殷)의 신하들 재주 뛰어나 서울에서 술 부으며 제사지냈네.  
그 제사 지내며 항상 예복을 갖추었네.  
왕의 신하들이여, 그대의 조상들 잊지 말렸다.

천명은 쉽지 않음을 그대들 잊지 말라.  
좋은 일 펼쳐지면, 은의 편안함은 하늘의 뜻이라.  
저 하늘의 명은 소리도 향기도 없는 법  
오직 문왕을 본받으면 온 세상 미더우리라.<sup>29)</sup>

27) 영남대본 연암집에는 ‘彼美人兮’로 되어 있다.(박지원 저, 신호열 김명호 옮김, 『연암집』 권7 별집, 민족문화추진회, 2004, 189쪽).

28) “自古有忠愛於君者 必咏美人而懷之 詩云有美一人兮 西方之人兮 說者曰 西方美人 文王也 屈原景差之徒 所以賦頌美人者多”(『燕巖集』卷7 別集, 翠眉樓記).

29) “亶亶文王 令聞不已 陳錫哉周 侯文王孫子 文王孫子 本支百世 凡周之士 不顯亦

주나라 문왕(文王), 서백(西伯)은 재위 시에 은(殷)나라와 화평하고, 제 후들에게 두루 두터운 신망을 얻었다. 위의 (6)에는 “문왕의 훌륭한 그 지없다”하고, “하늘의 명을 받아 은나라 백성들을 화목하게 감싼 것”을 들어 공경할 만하고 미더운 존재로 묘사하고 있다. 주 문왕 당시에는 군주와 신하가 의기를 투합하고, 서로 이해하고 예우하였고, (『정관정요』 권3, 君臣鑒戒) 태종이 “주 문왕이 여상(呂尙)[장태공]을 만난 것과 같은 기적을 기다린 연후에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소? 어떤 시대인들 어진 인재가 없을 리 있겠소. 단지 그들을 빠뜨리거나 알아보지 못할까봐 두렵소!”라 하였으니<sup>30)</sup> 어진 인재를 알아보는 혜안을 가진 군주로도 정평이 나 있다.

“남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일을 진심으로 행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은 것은 큰 임금 순(舜)의 효이고, (세자 시절) 궁궐의 낮은 관리에게 군주의 건강 상태를 묻고, 군주의 음식을 직접 미리 맛본 것은 주문왕의 미덕입니다.”<sup>31)</sup> 하였으니 참되고 어진 마음을 지닌 군주로도 인식했다. 이에 “주문왕의 정원은 사방 백리도 안 되었지만, 백성들이 자진해서 달려오므로 극히 성할 수 있었습니다.”<sup>32)</sup> 하였다.

문왕은 덕망 있는 정치를 시행함으로써 백성들은 마치 부모의 일에 급히 달려오듯이 달려와 공사(公事)를 보았다는 뜻이다. “답이 이미 울어서 동쪽이 흰하니,/이리 날고 저리 돌아 물오리 기러길 잡아야지./누구를 생각하는가, 저기 저 미인일세./혹 빨리 돌아오려면 얼음녹기 전이라야지.”, “다정한 물수리 하수(河水) 가에 있도다./수레 타고 멀리 나가 내 근심 덜

世”, “穆穆文王 於緝熙敬止 假哉天命 有商孫子 商之孫子 其麗不億 上帝既命 侯于周服”, “侯服于周 天命靡常 殷士膚敏 裸將于京 厥作裸將 常服黼黻 王之蠹臣 無念爾祖”, “命之不易 無遏爾躬 宣昭義問 有虞殷自天 上天之載 無聲無臭 儀刑文王 萬邦作孚” (李樛黃樞 撰, 『毛詩集解』卷30, 文王之什詁訓傳 第23 大雅: 朱子, 『詩經集傳』卷6, 大雅3, 文王之什三之一).

30) “(周文王) 逢呂尙然後 爲政乎 且何代無賢 但患遺而不知耳”(吳兢, 『貞觀政要』卷3, 擇官).

31) “愛敬烝烝 勞而不倦 大舜之孝也 訪安內豎 親嘗御膳 文王之德”(吳兢, 『貞觀政要』卷3, 封建).

32) “雖成百里之囿 周文以子來而克昌”(吳兢, 『貞觀政要』卷4, ) ; 『孟子』梁惠王 下).

어볼까./기품 있는 군자는 신명(神明)의 공이고,/만백성의 소망은 주(周)나라로 돌아가네.”라<sup>33)</sup> 하였으니, <도산십이곡>의 “피미일인(彼美一人)를 더욱 낫디 못흐애”는 “주(周) 문왕(文王) 시대처럼, 군주가 어질고 덕을 갖추어 만백성과 신하들의 두터운 신망을 얻고 군주와 신하가 서로 의기를 투합해 화합을 이루어 갔으면 하는 정치적 이상과 소망”을 담은 표현이다.

(7) 기사년(1569)에 돌아왔을 때, 선생께서 덕홍(德弘)에게 말씀하셨다.

“요즈음 돌아가는 조짐이 매우 두렵고 걱정스럽다.”

이에 덕홍이 말하였다.

“선생님은 이미 시골에 돌아와 계신데 두려워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내 한 몸이라면 걱정할 것이 못되지만, 사림(士林)이 위태롭고 나라가 흔들리게 생겼으니 어쩐단 말인가!”<sup>34)</sup>

제자의 물음에 대해 퇴계가 “사림이 위태롭고 나라가 흔들리게 생겼으니 어쩐단 말인가!”라고 했으니, 이 말 속에는 나라일에 대한 근심이 그대로 배어 있다. 퇴계는 학문과 수양을 위해 자연에 물러나 사는 중에도 항상 정치현실을 근심하고 국정의 안정을 희망했던 것이다. 앞 구절의 “백운(白雲)이 재산(在山)하 · 니 자연(自然)이 보디 도해”에서 ‘백운’을 단순히 ‘흰 구름’이라 하지 않고 “시골로 돌아가 그늘진 산에 머무는데, 양지바른 숲에선 붉은 꽃 환하네.”<sup>35)</sup>에서처럼 “시골로 돌아가 은거하는 삶을 비유”한 중의로 본다면 “이듬애~”를 향촌에 물러나 살면서 정치적 안

33) “雞既鳴矣東方明 將翱將翔弋鳧鴈 云誰之思彼美人 或過其歸冰未泮”, “關關雎鳩在河洲 駕言出游寫我憂 愷悌君子神勞矣 萬民所望歸于周”(李穡, 古意三章章四句, 『牧隱詩藁』 卷7, 詩藁; 『韓國文集叢刊』 4, 34쪽).

34) “己巳之歸 語德弘曰 近日爻象 甚可憂懼 德弘曰 先生既在山林 何懼之有 曰如愚一身不足恤 而其如士林之艱危 邦國之殄瘁何”(李德弘, 論時事, 『退溪先生言行錄』 卷4; 『退溪全書』 17, 退溪學研究院, 1994, 64~65쪽).

35) “丘中有鳴琴 白雲停陰岡 丹葩曜陽林 石泉漱瓊瑤”(『古今事文類聚』 前集 卷33, 退隱部).

정과 태평을 기원한 것으로 독해할 수 있는 여지는 더욱 높아진다.

### 2.3 “흐물며 어약연비(魚躍鳶飛) 운영천광(雲影天光)이아 어니 그지 이슬고”(언지6)

‘어약연비(魚躍鳶飛)’가 『시경(詩經)』 대아(大雅) “솔개는 하늘 위를 날고 고기는 연못에 뛰고 있네. 점잖은 군자님께서 어찌 인재를 잘 쓰지 않으리?(鳶飛戾天 魚躍于淵 豈弟君子 遐不作人)”에서<sup>36)</sup> 비롯하고, ‘운영천광(雲影天光)’은 주자(朱子) <관서유감(觀書有感)> “자그마한 연못이 거울처럼 열렸으니, 하늘빛과 구름 그림자가 함께 비친다. 물노니 연못이 어찌 이토록 맑은가? 옆에 샘터 있어 새물 자꾸 흐른다네.(半畝方塘一鑑開 天光雲影共徘徊 問渠那得清如許 爲有源頭活水來)”에<sup>37)</sup> 근거한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전자를 “사계절에 따라 자연이 불러일으키는 흥취가 끝이 없다는 작자 자신의 소회를 읊은 것”이라 보고,<sup>38)</sup> 후자를 “구름과 하늘빛[雲影天光]은 마음이 세속의 때와 먼지를 벗을 때, 그것은 거울처럼 맑고 투명해진다. 그때 외부의 자극에 대한 반응, 총체적으로 삶의 영위는 왜곡이나 이지러짐 없이 완전한 행동으로 드러난다, 즉 산수를 빌려 자신의 내면 풍경을 읊고 내면의 완성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sup>39)</sup> 읽거나 이 둘을 합쳐 “물에는 물고기 뛰고 하늘에는 솔개가 날며 구름이 그림자 드리운 사이로 하늘에 햇살이 비치는 자연스럽고 아름답 자연의 지극한 경지를 강조함으로써, 마음 또한 그러한 경지에 이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한다. 꾸미지 않고 거리낌 없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삼라만상의

36) 『詩經』 大雅 旱麓篇.

37) 朱子, 觀書有感, 『性理大全書』卷70.

38) 최현재, 「도산십이곡의 창작 의도와 ‘溫柔敦厚’의 의미」, 『한국문학논총』39, 한국 문학회, 2005, 183쪽.

39) 한형조, 「李滉의 陶山十二曲」, 『한국의 고전을 읽는다』2, 휴머니스트, 2006, 216~217쪽.

질서를 보면서 사람의 마음도 한결같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로<sup>40)</sup> 이해하기도 한다.

논의를 심화하면, 『중용』에서는 “시경에서 ‘솔개는 하늘 위를 날고 고기는 연못에 뜬다.’는 말이 ”상하 이치가 밝게 드러난다는 뜻“이라<sup>41)</sup> 설명하였다.

(1) 선생께 물었다. “솔개는 창공을 날고 물고기는 연못에서 뜬다 했는데, 이것은 수레는 물 위를 갈 수 없고 배는 땅 위를 갈 수 없다는 뜻과 같습니까?”

하니,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거기에도 그런 의미가 없지는 않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 도(道)의 신묘한 작용으로, 위와 아래에 모두 밝게 드러나 움직여 충만하다는 뜻이다. 그래서 주자(朱子)는 말씀하시기를, ‘도(道)의 흐름은 하늘과 땅 어디에서도 살필 수 있으니, 도는 없는 곳이 없다’ 하였다. 위에 있는 것으로 말하면, 솔개가 창공을 날아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고, 아래에 있는 것으로 말하면 물고기가 뛰어올라 못에서 나오는 것이다.<sup>42)</sup>

(2) 묻기를,

“솔개가 날고 물고기가 뛰는다는 것이, 어떤 일에 바로 알려고 하지 말고, 잊어버리지도 말고, 서둘러 일을 그르치지도 말라는 뜻과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니, 선생께서 말씀하기를. “솔개가 날고 물고기가 뛰는다는 것은 만물이 자라고 흘러가는, 위와 아래에 드러나 보이는 모든 것에는 오묘한 이치가 있음을 말한다. 하늘은 오직 욕심이 없어 이(理)와 기(氣)가 흘러 자연히 한순간도 쉬지 않는다. 사람도 노력하는 바가 있더라도 바라지는 말고, 서둘러 이루려는 생각의 병을 버린다면, 본모습이 드러나고 신묘한 작용이 나타나 한순간이라도 그 모습이 이와 같을 것이다.”<sup>43)</sup>

40) 최재남, 『서정 시가의 인식과 미학』, 보고사, 2003, 167~168쪽.

41) “詩云 鳶飛戾天 魚躍于淵 言其上下察也”(『中庸』 11章).

42) “問鳶飛戾天 魚躍于淵 此莫是車不行水 舟不行陸之義與 先生曰 其間 不無此意思 此則實道之妙用 上下昭著 流動充滿之義 故朱子曰 道之流行 發見於天地之間 無所不在 在上則鳶之飛而戾于天者 此也 在下則魚之躍而出于淵者 此也”(李德弘, 論理氣, 『退溪先生言行錄』卷4 ; 『退溪全書』17, 앞의 책, 52쪽).

43) “問鳶飛魚躍 與有事勿正勿忘勿助之義 同者何也 先生曰 鳶飛魚躍 狀化育流行 上下昭著 莫非此理之用 天惟無欲 故理氣流行 自然無一息間斷 人亦必有所事 而無期待

(1), (2)는 『중용』의 풀이를 그대로 잇고 있다. 솔개가 하늘을 날고, 물고기가 연못에 뿔다 함은 위와 아래, 하늘과 땅 어디에나 신묘한 이치, 오묘한 도가 작용한다는 뜻이다. “솔개는 햇별 쪼이는 곳에 있는 사물이므로 하늘을 날고 물속에 잠겨 살지 못하고, 물고기는 그늘진 곳에 존재하므로 연못에서만 뛰어놀 뿐 하늘로 날지 못한다. 누가 시켰는가? 그것은 저절로 이루어진 오묘한 이치로, 그렇지 않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요(要)는 가만히 그를 알아내는 길 뿐이다.”<sup>44)</sup> 우주 어느 곳, 일상생활의 모든 곳에 오묘한 천리(天理)가 작용하는데, 요(要)는 가만히 그것을 알아내는 것이라 하였다.

‘운영천광(雲影天光)’은 “자연의 순리. 의도나 조작이 추호도 개입될 수 없다. 천광운영이 연못에 배회한다는 것은 자연 그대로 적(寂)하고 능히 감(感)하는 미발(未發)과 이발(已發)의 경지를 비유”<sup>45)</sup> 견해가 제시된 적 있다. 앞서 제시한 주자의 글은 “샘터에서 자꾸 새물이 흘러 연못을 이루는데, 그 연못에 구름 그림자와 하늘빛이 비춘다.”는 뜻이다. 기대승도 <천광운영대> “깊고 맑은 푸른 물결에 하늘빛 비추니, 그 해의 ‘작은 연못’과 얼마나 비슷한가. 진실로 고요하고 깊어 만물(萬物)을 함축하니, 크고 넓고 기나긴 물의 근원을 그 누가 알리오.”<sup>46)</sup> 라는 시를 남겼다. 이에 구름 그림자와 하늘빛은 그 근원을 알 수 없는 자연의 지혜(智慧)로운 빛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흐물며 어약연비(魚躍鳶飛) 운영천광(雲影天光)이아 어니 그 지 이슬고’라 하였으니 이를 직역하면, 하물며 “하늘에 솔개 날고 연못에

去念助長之病 則本體呈露 妙用顯行 亦無一息之間 其象乃如此”(金誠一, 論理氣, 『退溪先生言行錄』卷4; 『退溪全書』17, 앞의 책, 53쪽).

44) “鳶陽物也 故戾于天而不得潛于水 魚陰物也 故躍于淵而不得飛于天 孰使之然也 此自然之妙 不容已之地 要在默而識之”(李德弘, 論理氣, 『退溪先生言行錄』卷4; 『退溪全書』17, 앞의 책, 52쪽).

45) 권오영, 「퇴계의 <陶山雜詠>의 理學的 含意와 그 전승」, 『韓國漢文學研究』46, 韓國漢文學會, 2010, 101~102쪽.

46) “滄波凝湛寫天光 何似當年半畝塘 固是靜深含萬象 誰知溥博發源長”(奇大升, 天光雲影臺, 『高峯集』續集 卷1; 『文叢』40, 250쪽).

고기 뛰는 일이나 구름 그림자와 하늘빛이야 그 끝이 있을 수 없다.”는 뜻이다. 곧 “도(道)는 위와 아래로 나타남을 말한 것이다. 군자의 도는 필부필부에게서 발단하지만 그 지극한 데에 이르러선 천지(天地)에 나타난다.”<sup>47)</sup>는 것이다. 요컨대, 천지자연, 우주의 오묘한 이치와 신비한 근원을 알 수 없으니, 끊임없는 탐구와 성찰을 통해 그 도를 터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배움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퇴계 자신이 오묘한 이치와 끝없는 도를 찾아 매진하리라는 다짐을 담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 2.4 “우리나·나 이목총명남자(耳目聰明男子)로 농고(聳瞽)기·디 마로리”(언학2)

그동안 이 구절을 그저 범박하게 “귀가 밝고 눈이 예민한 남자”로 풀이하기도 하고, “총명예지가 지극하면 중용(中庸)을 말한다.”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 하에, “분명하고 확실한 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sup>48)</sup>하기도 했다. 이 구절을 “<도산십이곡> 제 8수의 의미는 고래로 오리무중”이라고<sup>49)</sup> 하며 의미해석을 유보한 경우도 있다.

“귀와 눈이 밝은 사내로 태어나, 모자라지 않을 만큼의 재주를 하늘이 내렸으니, 모조록 월굴(月窟)을 더듬어 만물의 이치를 알고 하늘의 끝[天根]을 좇지 못한다면 어찌 식견 있다 하겠는가. 하늘이 손괘(巽卦)를 만날 적에 월굴이 보이고, 땅이 우레를 만날 때에 천근(天根)을 볼 수 있으니, 천근과 월굴을 한가로이 오고가면, 36궁이 모두 봄일 것이다.”<sup>50)</sup>

47) 李在興, 『도산십이곡』, 어문학사, 2011, 148쪽.

48) 최재남, 『서정시가의 인식과 미학』, 보고사, 2003, 169쪽.

49) 한형조, 「이황의 <도산십이곡>」, 『한국의 고전을 읽는다』2, 휴머니스트, 2006, 222쪽.

50) “耳目聰明男子身 洪鈞賦與不爲貧 因探月窟方知物 未躡天根豈識人 乾遇巽時觀月窟 地逢雷處看天根 天根月窟間來往 三十六宮都是春”(邵雍, 觀物吟, 『擊壤集』 卷16).

‘천근’은 “하늘의 맨 끝, 28수의 동방 칠수(七宿) 중 제 3수로, 네 개의 별로 이루어져 있고”, ‘월굴’은 “달 속에 있다는 굴, 달빛 어린 빈 굴, 전설상 달이 들어가 잠잔다는 장소”를 말한다. ‘이목총명남자(耳目聰明男子)’란 “오묘한 지식 세계를 깨달을 수 있는 재주를 부여받은 사람”이란 뜻이다. 월굴을 더듬어 만물의 이치를 알고, 식견을 가지면 하늘 끝[天根]을 좇을 수 있는 것처럼, 모름지기 우리들은 “이목 총명한 남자”이니 끊임없는 탐구와 연마를 통해 진리를 추구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는 지식인으로서의 책무와 사명감을 강조한 말이면서 배움에 임하는 자는 지혜와 깨달음을 얻으려는 꾸준한 노력을 해 나가야 한다는 필요성을 언급한 말이다. 『장자(莊子)』에 “장님은 글이나 무늬를 볼 수 없고, 귀머거리는 악기 소리를 들을 수 없다. 어찌 겉으로 보이는 형체에만 장님과 귀머거리가 있다고 할 것인가! 무릇 지식세계에도 그것이 있으니 바로 자네를 두고 한 말일세.”라는<sup>51)</sup> 구절이 있다.

그러므로 <도산십이곡>의 ‘농고(龔瞽)기·디 마로리’에는 꾸준한 학문을 통하여 귀와 눈을 밝게 하지 못한다면 소경이나 귀머거리와 다를 바 없으니 이를 경계해야 한다는 담론이다. 즉, 항상 자신의 지식 세계를 밝고 지혜롭게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한 말이다. “귀가 밝은 사람은 전 시대 음악의 울림만 듣고서도 흥망(興亡)을 헤아리고, 눈이 밝은 사람은 아직 채 드러나지 않은 미묘한 징후에서도 일의 기미를 볼 수가 있다.”는<sup>52)</sup> 말이 있으니 궁극적으로는 선비란 모름지기 작은 징후를 보고도 미래를 예감하고 흥망성쇠를 헤아릴 만큼 높은 지혜를 갖추어야 한다는 말로 이해할 수도 있다.

51) “瞽者無以與乎文章之觀 聾者無以與乎鐘鼓之聲 豈惟形骸有聾盲哉 夫知亦有之 是其言也”(『莊子』卷1, 逍遙遊).

52) “抱朴子曰 聰者 料興亡於遺音之響絕 明者 覲機理於玄微之未形”(葛洪 撰, 『抱朴子』卷4, 外篇, 廣譬 第39).

## 2.5 “우리도 그치디마라 만고상청(萬古常靑)호리라”(언학5)

강호가도는 자연에 내재한 ‘이(理)’를 찾아내어 그것과 합일함으로써 자신의 심성을 닦고 인격을 수양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sup>53)</sup> “청산(靑山)나 · 나 ~”은 자연 속에서 자연과 인간의 합일을 통하여 이상적 삶의 자세를 추구하고 있는 강호가도는 우리 시조의 흐름에서 매우 중요한 경향이다.<sup>54)</sup> 이 시조는 ‘청산’의 불변성을 노래하고 있고, 중장에서는 ‘유수’의 부단성(不斷性)을 노래하고 있다. 청산의 불변성과 유수의 부단성은 영원히 불변하는 자연의 법칙이다. 청산이나 유수와 마찬가지로 영원히 변치 않겠다고 노래하고 있다. 말하자면 청산과 유수에서 발견한 자연의 ‘이’에 인간인 우리도 합일하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sup>55)</sup>

여기에 “만고에 푸르고 주야에 그치지 아니하는 청산(靑山)과 유수(流水)의 불변함과 같이 변함없는 수양의 자세를 견지하자는 원칙론의 표현으로, 자연을 만물의 근원자인 이(理)의 표현으로 보고 이와 의 합일이라는 이상을 추구하는 유교적인 수양 자세를 드러낸”<sup>56)</sup> 것이라 하기도 하고, “항상 푸른 청산과 그치지 않는 유수를 본받아 인간의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sup>57)</sup> 것이라는 설명이 더해지니 대체적인 통설을 이루었다.

한편 이와 관점을 조금 달리하여, “청산과 유수의 변함없음을 보아 우리 인간도 영원히 저렇게 늙지 않고 살았으면 하는, 자연 구가나 한정가의 노래처럼도 보이나 그 만고상청(萬古常靑)이라는 말은 인간적 청춘보다도 학문적 청춘을 말한 것으로 보고 싶다. 물론 자연미에 침잠하여서

53) 趙潤濟, 『韓國文學史』, 탐구당, 1981, 160~168쪽.

54) 趙泰欽, 時調 ; 金承璨·金坡五 외, 『韓國文學概論』, 三知院, 1995, 157쪽.

55) 조태흠, 性情之正의 문학 ; 김승찬·이현홍 외, 『한국의 문학사상』, 세종출판사, 1998, 196~197쪽.

56) 全在康, 「도산십이곡의 理氣論의 根據와 內的 秩序 研究」, 『語文學』70, 한국어문학회, 2000, 230쪽.

57) 신영명, 『사대부시가의 연구』, 국학자료원, 1996, 130쪽.

노쇠를 잊을 수도 있겠지만 만고불변하는 청산유수같이 영원성을 띤 것은 학문일 것이다.”하여 늘 학문적 청춘을 유지하며 영원히 공부하자는 덕망 높은 학자의 원숙한 심경으로 이해하기도 한다.<sup>58)</sup>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퇴계는 학문의 세계에서 찾았다.”<sup>59)</sup>는 주장도 비슷한 생각이다.

‘만고상청(萬古常靑)’의 용례는 『성리대전서(性理大全書)』에 보인다.

(1) “일월성신(日月星辰)은 늘 일정한 궤도를 움직여 한 치의 오차도 없으니 이 또한 성실한 도리이다. 과일을 보라. 단 것은 오래도록 단 맛을 변치 않고, 쓴 것은 변치 않고 쓴맛을 유지한다. 푸른 것은 오래도록 푸르고, 흰 것은 영원히 희며, 붉은 것은 계속 붉고, 둥근 것은 지속적으로 붉지 아니한가.”<sup>60)</sup>

(2) “천지자연의 도리를 살펴보면, 그 이치의 흐름은 예나 지금이나 한 치도 어긋나지 않는다. 더위가 가면 추위가 오고, 해가 뜨면 달이 지고, 봄이 오면 곧 여름이 다가오고 가을이 끝나면 곧 겨울이 숨었다 나온다. 돌고 도는 시작과 끝이 영원히 이와 같으니 단지 진실 된 도리만이 이를 주재한다. 만물에게 부여한 이치 또한 이와 같으니 푸른 것은 영원히 푸르고, 흰 것은 변함없이 희고, 둥근 것은 항상 둥글고, 빠진 것은 늘 빠지고, 나는 새 달리는 짐승은 변함없이 날고 달린다. 흘러 쌓이는 것은 항상 흘러와 쌓이어 하나도 그렇지 않은 것이 없고 작은 것 하나도 차이가 생기지 않으니 오직 참된 이치가 있어 자연히 그러한 것이다.”<sup>61)</sup>

58) 李泰極, 『時調概論』, 새글사, 1974, 200쪽; 李泰極, 『덜고 더한 時調概論』, 半島出版社, 1992, 200쪽.

59) 성낙은, 『고시조 산책』, 국학자료원, 1996, 183쪽.

60) “日月星辰之運行 躔度萬古不差 皆是誠實道理如此 又就果木觀之 甜者萬古甜 苦者萬古苦 靑者萬古常靑 白者萬古常白 紅者萬古常紅 紫者萬古常紫 圓者萬古常圓 缺者萬古常缺 一花一葉文縷相等對萬古常然 無一毫差錯”(『性理大全書』卷37, 性理9, 仁義禮智信).

61) “試以天道觀之 天道流行 亘古今而不忒 暑往則寒來 日升則月沉 春生了便夏長 秋殺了便冬藏 循環終始 萬古常如此 只是眞實底道理爲之主宰 其理之賦於萬物者亦如此 靑者萬古常靑 白者萬古常白 圓者萬古常圓 缺者萬古常缺 飛走者萬古飛走 流峙者萬古流峙 無一物不然 無一毫或差 惟其有實理 自然而然”(洪葦, 閒居問答 湖堂朔製 論務實, 『清溪集』卷7, 雜著; 『文叢』125, 94쪽).

(1)은 일월성신(日月星辰) 자연의 속성이나 사물의 본질적 요소가 항상 그대로 유지되는 것처럼, 사람(선비) 또한 항상 변하지 않는 속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2) 또한 계절의 변화나 천지자연의 도리, 푸르고 둥글고 빠지는 등 만물의 이치는 작은 것 하나도 차이가 생기지 않고 참된 성질을 유지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맹자』에도 고자(告子)가 말하기를 “나면서부터 가진 것을 성(性)이라 한다.” 하였다. 맹자가 묻기를, “나면서부터 가지는 마음을 성이라 하는 것은 흰 것을 희다 이르는 것과 한가지인가?” 하니 (고자가) “그러하다.” 하고, “흰 것의 흰 것은 흰 눈이 흰 것과 같고, 흰 눈이 흰 것은 백옥이 흰 것과 한 가지인가?” 하니, “그렇다.” 하였다.<sup>62)</sup>

퇴계도 “처음에 기초하여 말한다면, 마음이 발하지 아니하고 기(氣)가 작용하지 아니하여 본체가 허명(虛明)할 때면 진실로 선(善)하지 아니함이 없다.”고 인식하고,<sup>63)</sup> 이를 두고 “사람이 원래부터 부여받은 순수하게 본연의 성[純以本然之性]”이라 하였다. “대개 성(性)을 물[水]에 비유한다면 맑고 고요히 흐르는 것이 물의 본성이나 진흙 찌꺼기를 만나면 더럽고 탁해지며 험한 곳을 만나면 파도가 세차지만 이러한 것이 물의 본성은 아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물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 다만 그 만나는 바가 다를 뿐이다. 그렇다면 악한 기를 받았을 때, 비록 성의 본연이라 할 순 없지만 어찌 성의 이치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라<sup>64)</sup> 하여 맑고 고요히 흐르는 물의 본성처럼, 우리 마음의 본연도 선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불변의 지향’이라 이해하던 “우리도 그치디마라 만고상청(萬古常靑)호리라”에 담긴 의미를 좀 더 구체화시키면 “일월성신이나 계절,

62) “告子曰 生之謂性 孟子曰 生之謂性也 猶白之謂白與 曰然 白羽之白也 猶白雪之白 白雪之白 猶白玉之白與 曰然”(『孟子』 告子章句 上).

63) “然本於初而言 則心之未發 氣未用事 本體虛明之時 則固無不善”(李滉, 答鄭子中別紙, 『退溪集』 卷24 ; 『文叢』30, 73쪽).

64) “蓋性比於水 清而安流 水之性也 其遇泥滓而污濁 遇險而波濤洶洶 非其性也 然不可不謂之水 特所值者異耳 然則稟氣之惡 雖非性之本然 豈不可謂性之理耶”(李滉, 答鄭子中別紙, 『退溪集』 卷24 ; 『文叢』30, 73쪽).

천지자연, 만물이 타고난 바탕을 유지해 나가는 것처럼, 모름지기 인간도 순수하게 부여받은 선한 마음의 본체를 유지하고 추구해야 함을 강조한 표현”이 된다.

### 3. <도산십이곡>의 의미와 성격

<도산십이곡>의 ‘언지(言志)’를 “때에 느낀 정을 풀음이다.”<sup>65)</sup> “때를 만나고 사물에 대하여 일어나는 심정의 감흥을 읊은 것이다.”라고<sup>66)</sup> 한 이후, 언지는 “사물에 접하는 감흥, 자연과 더불어 사는 뜻”이나 “도(道)의 완성을 지향하고, 자연에 동화된 생활 자세를 담은 것으로 이해해 왔다. “도(道)를 지(志)한다.”, “강호에 묻힌 기쁨과 그 속에서 성현의 글을 익혀 도의(道義)를 기르게 된 기쁨, 즉 자연에서 천리(天理)와 도(道)의 구현과 유행을 보고 배우면서 한편으로는 성현(聖賢)의 도를 체득해 가는 보람과 기쁨을 읊었다.”<sup>67)</sup> 하기도 하고, “구체적인 사물을 보고 느끼고 생각한 뜻이나 추상적인 사념(思念)의 뜻을 말로 나타낸 것, 퇴계의 지(志)는 자연 속에 묻혀 자연과 더불어 자연의 섭리를 따르며 자연을 즐기며 살아가는 자기 삶의 지향”이라<sup>68)</sup> 이해하기도 했다.

(1) 주자가 말하기를, “지(志)와 의(意) 가운데 지(志)는 마음의 지향해 가는 바가 변함없이 곧게 가는 것이고, 의(意)는 또 곧 지가 일정한 계획에 따라 오고 가는 것이니 주장이 또한 이와 같은 것이다.” 하였다. … 공이 어렵고 험함을 따지지 않고, 이토록 먼 곳을 발걸음 한 것이 바로 지(志)입니다. … 그 가운데 지(志) 의(意) 사(思) 세 가지가 더욱 중요하다. 지는 정대하고 참되고 굳어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자께서는 “학문에 뜻하고,

65) 申瑛澈, 『古時調新釋』, 東邦文化社, 1948, 88쪽.

66) 趙潤濟, 『國文學史概說』, 乙酉文化社, 1976, 79~80쪽.

67) 崔信浩, 「<도산십이곡>에 있어서의 ‘言志’의 성격」, 『한국고전시가작품론2』, 집문당, 1992, 513~517쪽.

68) 金榮淑, 「退溪 시에 있어서 ‘言志’와 ‘言學’의 類型과 詩的 形象」, 『東亞人文學』12, 東亞人文學會, 2007, 30~31쪽.

도(道)에 뜻하고, 인(仁)에 뜻하라.”는 가르침을 남기셨고, 맹자께서는 “뜻을 고상하게 가지라(尙志), 뜻을 지키라(持志)”는 가르침을 남기셨다.<sup>69)</sup>

(2) “점(點 ; 曾點)아, 너는 어떠한가?”  
거문고를 뚝뚝 타다가 내려놓고서 말하기를,  
“저는 다른 사람의 생각과 좀 다릅니다.”  
하니, “무슨 근심인가? 또한 각자 자신의 뜻을 말해보라.”  
하였다.<sup>70)</sup>

위의 자료는 언지의 뜻을 구체화하는 데 좋은 단초가 된다. (1)에서는 어렵고 험함을 따지지 않고 먼 길을 한달음에 달려가는 것처럼 마음이 변함없이 곧게 지향하는 바를 ‘지(志)’라 하였다. 퇴계가 정자중(鄭子中)에게 쓴 편지글에서도 “주자가 이르기를, 지(志)는 마음의 가는 바가 한결같이 곧게 가는 것이요, 의(意)란 지(志)가 경영(經營)하고 왕래하는 것이니, 이것은 지의 다리와 같은 것이다.”<sup>71)</sup>

(2)는 공자가 제자들에게 각자 자신의 뜻을 말해보라는 질문에 대해 여러 제자들이 저마다의 이상과 도를 말하는 대목이다. 예치(禮治)의 도(道) 등을 말하는 가운데 증점(曾點)은 “아이들처럼 벗과 어울려 기수에서 목욕하고 기우제 터에서 바람 쐬고 노래 부르며 돌아오겠습니다.”라고 말하고 공자도 이에 맞장구를 쳤다.<sup>72)</sup> 이는 유유자적하는 은자(隱者)의 삶을 지향하겠다는 뜻이다. 남효온(南孝溫)의 시에도 “머나먼 객지에서 함께 한 해 보내니,/나그네 신세라도 회포가 많다네./거문고 내려놓고 마음의 뜻

69) “志意 朱子曰 志是心之所之 一直去底 意又是志之經營往來底 亦主張要恁地”, … “如公之不計難險 作此遠遊 志也”, … “而其中志意思三者尤重 志欲其正大誠確而不變 故孔子有志學志道志仁之訓 孟子有尙志特志之教”(李滉, 答金而精, 『退溪集』 卷29 ; 『文叢』 30, 178쪽).

70) “點 爾何如 鼓瑟希 鏗爾 舍瑟而作 對曰 異乎三子者之撰 子曰 何傷乎 亦各言其志也”(『論語』 先進).

71) “朱子云 志是心之所之一直去底 意是之經營往來底 是那志底脚”(李滉, 答鄭子中別紙, 『退溪集』 卷25 ; 『文叢』 30, 96쪽).

72) “冠者五六人 童子六七人 浴乎沂 風乎舞雩 詠而歸 夫子喟然歎曰 吾與點也”(『論語』 先進).

말하니, 푸른 등이 선달 비에 기울어지네.”가<sup>73)</sup> 있다. 이 또한 『논어』 선진 편을 인용하였으므로, 셋째 구 ‘사슬□언지(舍瑟□言志)’에서 가운데 빠진 글자는 ‘각(各)’ 자일 것이다. 퇴계도 『논어』의 이 구절을 인용하여 “뜰에는 비가 개어 서서히 별 나는데, 꽃향기 날아와 옷자락에 배누나. 어찌하여 네 제자 모두 자기 뜻을 말했는데, 공자는 시 읊고 돌아온다는 말에 감탄하였나.”라<sup>74)</sup> 했으니 여기서 ‘언지’란 자신의 마음에 품은 이상과 포부, 뜻과 지향점을 말한다.

(3) “숨어 지내며 뜻을 구함은 무엇 때문인가, 스스로 깨닫고자./하늘 아래 백성의 덕업을 모름지기 구하련다./현자 되길 바라는 것, 우리들 바라는 일./도를 지키자면 어찌 이 걱정 잊으리오./잘못 길러진 인재라면 본을 다시 떠야 하고./잘못 된 길 알았다면 급히 수레 돌려야지./다만 청빈한 길 좇아 지닌 바에 부지런하면./부귀는 헛된 구름 한 점으로 떠 있으리.”<sup>75)</sup>

(4) “서당이 반쯤 이루어져 스스로 기쁘구나./산에 살면서도 도리어 몸소 경작하는 일을 면했구나./조금씩 책을 읊기니 옛 감실이 텅 비고./대를 심어 살펴보니 새순이 나는구나./샘물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는 것도 몰랐었는데./고운 산 빛 아침에 또다시 개니 좋아라./이제야 알겠노라, 예부터 선비들 산림에 묻히면./만사를 다 잊고서 이름 숨긴 까닭을.”<sup>76)</sup>

(3)은 퇴계의 <구지(求志)>이고, (4)는 <도산언지(陶山言志)>이다. (3)은 “숨어 지내며 도와 깨달음, 그리고 백성의 덕업을 구하려는 뜻”을 표현하

73) “天涯同守歲 客裏更多情 舍瑟□言志 青燈臘雨傾”(南孝溫, 在頭輪山 奉和監司金佔畢韻 二首, 『秋江集』 卷2).

74) “庭宇新晴麗景遲 花香拍拍襲人衣 如何四子俱言志 聖發咨嗟獨詠歸”(李滉, 山居四時各四吟 共十六絕, 『退溪集』 卷4 ; 『文叢』 29, 131쪽).

75) “隱志非他達所由 天民德業尚須求 希賢正屬吾儕事 守道寧忘此日憂 大錯鑄來容改範 迷途覺處急回輒 祇從顏巷勤攸執 貴富空雲一點浮”(李滉, 求志, 『退溪集』 卷3 ; 『文叢』 29, 110쪽).

76) “自喜山堂半已成 山居猶得免躬耕 移書稍稍舊龕盡 植竹看看新笋生 未覺泉聲妨夜靜 更憐山色好朝晴 方知自古中林士 萬事渾忘欲晦名”(李滉, 陶山言志, 『退溪集』 卷3 ; 『文叢』 29, 116쪽).

였고, (4)에는 산림에 묻히어 서당을 짓고 후학을 기르며 만사를 다 잊고서 이름 숨기고 살고자 하는 마음을 담았다.

이상을 종합하면, ‘언지(言志)’는 “마음이 한결같이 곧게 가는 것”, “자신의 마음에 품은 이상과 포부, 뜻과 지향”을 말한다. 그러므로 <도산십이곡> 전6곡을 두고 언지라 칭한 것은 자연에 묻혀 도와 깨달음·덕업을 구하기 위해 수양하고 학문하는 가운데 꼭 지켜나갈 이상과 포부, 뜻과 지향점을 말한다.

이상에서 살핀 언지3은 선비란 화려한 글 솜씨를 뽐내고, 벼슬과 관직이 높아지는 것보다 진정한 학문을 추구해야 한다는 당위와 지향점을 제시한 것이고, 언지4는 군주가 인덕을 갖추어 만백성의 신망을 얻고 군신간에 의기를 투합하여 화합과 태평을 이루기를 바라는 이상과 소망을 담고 있다. 언지6은 지속적인 탐구와 성찰을 통해 천지자연, 우주의 이치와 근원을 탐구해야 한다는 당위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산십이곡> 전(前) 6곡 언지의 각 수를 다시 분석하면, “모름지기 선비들이란 벼슬이나 출세에 힘쓰기보다 자연에 묻히어 학문이나 심성 수양에 힘쓰고(언지 1·2·3), 지속적으로 정치적 관심을 유지하는 가운데 이상적인 정치현실을 꿈꾸며(언지4·5), 우주의 지배 질서, ‘오묘한 이치와 도(道)’를 깨닫기 위해 항상 정진한다.(언지6)”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도산십이곡>은 자신을 비롯한 선비들이 견지해야 할 삶의 지향점이나 가치를 제시하고, 학문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하는 배움의 자세를 강조하는 다짐과 가르침을 담고 있다.

그간 <도산십이곡> ‘언학(言學)’을 학문의 즐거움과 의지를 담고, 벼슬길을 좇았던 일을 후회하면서 학문에 몰두할 것이라는 다짐을 표현했다고 설명하거나 “주경적(主敬的) 수양론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고, ‘언지(言志)’는 주리적(主理的) 이기론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다.”라고<sup>77)</sup> 이해하기도 했지만, 추상적으로 호를 우려가 있으므로 시어를 좀 더 실증적으로 살펴

77) 全在康, 「도산십이곡의 理氣論의 根據와 內的 秩序 研究」, 『語文學』70, 한국어문학회, 2000, 236쪽.

구체적으로 결론지으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먼저 『근사록』에는 “배움에 대해서 말한다면 곧 도에 뜻을 두어야 할 것이고, 사람에게 대해서 말한다면 성스러움에 뜻을 두어야 할 것이다.”<sup>78)</sup> 하여 배움에 대한 생각을 말하는 것을 일컬어 ‘언학’이라 했다.

(5) 옥도 갈지 않으면 그릇을 만들기 어렵고,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도를 알기 어렵다. 이런 까닭으로 예전의 왕은 나라를 세워 백성들의 임금노릇을 하려면 가르침과 배움을 우선으로 여겼다. 열명(說命)에 “사람이란 평생토록 학문에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한 것은 이것을 말한 것이다. 주석(註釋)하기를, “전(典)은 좋은 책이고, 배움[言學]이란 공부를 그만두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하였다. ‘태(兌)’는 ‘열(說)’자의 잘못이다.<sup>79)</sup>

(6) 사(思) 소주(小註). 절재(節齋) 채씨(蔡氏)가 말하기를, “성인(聖人)을 배우는 일[言學]을 말하는 것이다.” 하였다. 주자(朱子)는 사통(思通)을 신(神)이라고 하였으니, 성인(聖人)을 가리킨 것이다. 재치 있는 생각이 통하는 것을 말한다. 절재 채씨는 성인을 배우는 자의 일이라고 하였으나, 용(用) 자로 말한 것은 염려하고 거리낌이 있는 것이다.<sup>80)</sup>

(5), (6)에서 ‘언학’은 “배움이나 배우는 일”을 말했고, 퇴계는 “나는 그대 뜻 독실함이 애뜻했는데, 학문에 대해 말하자면 노력 부족이 있다네. 편지 전할 때마다 거듭 꾸짖으며, 힘써 서로 밀고 당기었다. 이제 그 세월 얼마나 흘렀던가.”에서<sup>81)</sup> ‘언학’은 문인의 배움과 학문에 관한 지적을 담고 있다.

78) “言學便以道爲志 言人便以聖爲志”(『近思錄』卷2, 爲學).

79) “玉不琢 不成器 人不學 不知道 是故 古之王者 建國君民 教學爲先 兌命曰 念終始 典于學其此之謂乎 注典經也 言學之不舍業也 兌當爲說字之誤也”(『禮記註疏』卷36, 學記).

80) “思第九 小註 節齋蔡氏曰 言學聖之事 思通 朱子以爲神 則指聖人也 謂才思便通 蔡氏則曰 學聖人者事 然恐礙於用字也”(曹好益, 諸書質疑, 『芝山集』卷6, 雜著; 『文叢』, 538쪽).

81) “我哀厥志篤 言學有未墾 貽書每苦口 努力相推輓 歲月今幾何”(李滉, 次韻奇明彥贈金而精二首 勤學, 『退溪集』卷5; 『文叢』29, 148쪽).

(7) “세밀이라 온갖 감회 많은데, 그대와 헤어지니 맥이 풀리네. 이제 모든 일이 산산조각 났으니, 언제까지 몇 명이나 온전할까. 정성이 서야 마침내 학문을 말하는 법, 인격 수양을 두고 하늘을 원망하라. 종종걸음으로 집에 가서 혹 내 소식 묻거든, 깊은 산골에 눈 가득 쌓였다고 해주시게.”<sup>82)</sup>

(7)에서도 ‘언학’은 “학문과 배움에 관해 말한다.”는 의미로 쓰였다. 정성스러움과 인격 수양 등은 올곧은 배움을 위한 필요조건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퇴계가 <도산십이곡>의 후6곡을 ‘언학(言學)’이라 한 것은 “배움에 대하여, 배우는 사람(선비)의 자세에 대하여 말하고자 한다는 창작 의도를 밝힌 것”이라고 개념 정립할 수 있다.

언학2는 지식인이란 모름지기 열린 귀 지혜로운 눈을 가져야 한다는 책무와 사명감, 이목을 열기 위한 탐구와 연마를 강조하고 있다. 언학5은 일월성신이나 천지자연, 만물이 변하지 않는 속성을 유지해 나가는 것처럼, 모름지기 인간도 본연의 착한 심성을 유지하고 추구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후6곡을 정리하면, <도산십이곡> 후6곡 언학은 “학문과 풍류 세계를 유연히 오가면서(언학1), 성현이 남긴 학문 세계를 좇아 지혜를 갈구하고(언학2·3), 사람이 타고난 본연의 선한 본성을 유지하며 꾸준히 학문에 침잠한다.(언학4·5·6)”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학문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하는 배움의 바른 자세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제6수는 쉬운 듯 어려운 듯 여기며 학문 세계에 빠져서 사는 즐거움을 그리면서, 쉽다고 오만하지도 말고 어렵다고 포기하지도 말고 꾸준히 정진한다는 당부와 다짐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82) “歲暮仍多感 分攜更惘然 如今萬事裂 終古幾人全 誠立方言學 人修可責天 趨庭如問我 窮谷雪盈顛”(尹拯, 送別李甥端明歸觀鐵甕謫所 二首, 『明齋遺稿』卷3 ; 『文叢』135, 81쪽).

## 4. 마무리

그동안 피상적으로 읽은 <도산십이곡>의 구절구절을 다시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몇몇 대목이 다르게 읽혔다.

언지3의 ‘순풍(淳風)이 죽다 ㅎ·니 진실로 거즈마리’는 선비 사회의 풍속을 언급한 대목으로, “자고로 선비란 여럿이 모여 앉아 화려한 글 솜씨나 뽐내고, 벼슬이 앞서가고 관직이 높아지는 것을 다룰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학문을 해야 한다는 당위와 지향점”을 제시한 것이다.

언지4의 ‘피미일인(彼美一人)를 더욱 닛디 못ㅎ애’는 “주(周) 문왕(文王) 시대를 이상 모델로 삼아, 군주가 어질고 덕을 갖추어 만백성과 신하들의 두터운 신망을 얻고 군주와 신하가 서로 의기를 투합해 화합을 이루어 갔으면 하는 정치적 이상과 소망”을 담고 있다.

언지6의 ‘ㅎ물며 어약연비(魚躍鳶飛) 운영천광(雲影天光)이아 어닉 그지 이슬고’라 하였으니 직역하면, “하물며 하늘에 솔개 날고 연못에 고기 뛰는 일이나 구름 그림자와 하늘빛이야 그 끝이 있을 수 없다.”이다. 여기엔 천지자연, 우주의 오묘한 이치와 신비한 근원을 알 수 없으니, 끊임없는 탐구와 성찰을 통해 그 도를 터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당위를 강조하고 있다. 동시에 자신도 끝없는 도를 향해 매진하리라는 다짐의 의미로 읽을 수도 있다.

언학2 “우리는 이목총명남자(耳目聰明男子)로 농고(聾瞽)기·디디 마로리”가 있다. 소옹(邵雍)의 『격양집(擊壤集)』에 따르면, ‘이목총명남자’란 “오묘한 지식 세계를 깨달을 수 있는 조그만 재주나마 부여받은 사람”이란 뜻으로, 지식인으로서의 책무와 사명감을 강조한 말이다. ‘농고기·디디 마로리’는 꾸준한 학문을 통하여 귀를 밝게 하고 눈을 밝게 하지 못한다면 눈 먼 소경과 귀가 먼 귀머거리처럼 될 것이니 이를 경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배움에 임하는 자는 끊임없는 탐구와 연마를 통해 진리를 추구해야 한다는 당위성, 항상 자신의 지식 세계를 밝고 지혜

롭게 해야 함을 강조한 말이다.

언학5 “우리도 그치디마라 만고상청(萬古常靑)호리라”는 일월성신이나 계절, 천지자연이 변하지 않는 속성을 유지해 나가는 것처럼, 인간도 모름지기 순수하게 부여받은 선한 마음의 본체를 유지하고 추구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도산십이곡> 언지 6수는 자연 친화적인 삶 속에서 학문과 자기수양에 힘쓰면서도 덕치나 군신의 조화 등 정치적 이상을 꿈꾸고 오묘한 이치와 도(道)를 위해 정진하는 선비의 지향점을 제시하고, 선비란 벼슬이 앞서가고 관직이 높아지는 것보다는 학문 세계를 깊게 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당위와 지향을 담고 있다. <도산십이곡> 후 6곡 ‘언학(言學)’은 “배움·지혜로움을 향하는 사람이 반드시 가져야 하는 자세, 즉, 선한 본성, 지혜와 깨달음을 추구하는 태도, 꾸준한 정진” 등 학문을 하는 지식인으로서 반드시 견지해야 할 책무와 사명감을 강조하고 있다.

## 참고문헌

『退溪集』, 『韓國文集叢刊』29, 30, 31, 『退溪先生言行錄』, 『明宗實錄』, 『瓚齋集』, 『五峰集』, 『東坡全集』, 『稼亭集』, 『御纂朱子全書』, 『竹溪志』, 『眉叟記言』, 『梅軒集』, 『湛軒書』, 『詩經』, 『燕巖集』, 『毛詩集解』, 『詩經集傳』, 『貞觀政要』, 『牧隱詩藁』, 『不憂軒集』, 『後漢書』, 『古今事文類聚』, 『性理大全書』, 『中庸』, 『秋江集』, 『論語』, 『明齋遺稿』, 『芝山集』, 『禮記註疏』, 『近思錄』, 『抱朴子』, 『孟子』, 『清溪集』, 『擊壤集』, 『古今事文類聚』

국어국문학 편찬위원회 편, 『國語國文學資料辭典』, 한국사전연구소, 1995.

- 권오영, 「퇴계의 <陶山雜詠>의 理學的 含意와 그 전승」, 『韓國漢文學研究』46, 韓國漢文學會, 2010, 93~128쪽.
- 金光淳, 「陶山十二曲에 나타난 自然觀과 人間觀」, 『퇴계학과 유교문화』 22, 경북대학교 퇴계학연구소, 1994, 27~44쪽.
- 김상진, 『16·17세기 시조의 동향과 경향』, 국학자료원, 2006.
- 金榮淑, 「退溪 시에 있어서 ‘言志’와 ‘言學’의 類型과 詩的 形象」, 『東亞人文學』12, 東亞人文學會, 2007, 27~54쪽.
- 金昌沅, 「壺中天地의 園林美學과 陶山十二曲의 江湖」, 『국어국문학』 118, 국어국문학회, 1997, 127~153쪽.
- 김흥규, 「古典文學 敎育과 歷史的 理解의 원근법」, 『현대비평과 이론』3, 한신문화사, 1992 봄.
- 김흥규, 『한국 고전문학과 비평의 성찰』, 高麗大學校 出版部, 2002.
- 류연석, 『시조와 가사의 해석』, 역락, 2006.
- 류해춘, 「도산십이곡과 어부사시사, 그 표현 의도와 수사학」, 『고시가연구』27, 한국고시가문학회, 2011, 209~231쪽.
- 성기옥, 「도산십이곡의 구조와 의미」, 『韓國詩歌研究』11, 韓國詩歌學會, 2002, 195~230쪽.
- 성기옥, 「도산십이곡의 재해석」, 『震檀學報』91, 震檀學會, 2001, 247~275쪽.
- 손오규, 도산십이곡의 自然, 『조선조 시가의 존재양상과 미의식』, 보고사, 1999.
- 신연우, 「도산십이곡에의 미학적 접근」, 『고전문학연구』25, 한국고전문학회, 2004, 197~224쪽.
- 李東英, 도산십이곡,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 李在興, 『도산십이곡』, 어문학사, 2011.
- 李滉 著, 崔重錫 譯註, 答奇正字明彦, 『自省錄』, 國學資料院, 1998.
- 李泰極, 『時調概論』, 새글사, 1974 ; 『덜고 더한 時調概論』, 半島出版

- 社, 1992.
- 全在康, 「도산십이곡의 理氣論的 根據와 內的 秩序 研究」, 『語文學』70, 한국어문학회, 2000, 217~241쪽.
- 정재호, 『한국시조문학론』, 태학사, 1999.
- 崔信浩, 도산십이곡>에 있어서의‘言志’의 성격, 『한국고전시가작품론2』, 집문당, 1992.
- 최재남, 『士林의 鄉村生活과 詩歌文學』, 國學資料院, 1997.
- 최재남, 『서정 시가의 인식과 미학』, 보고사, 2003.
- 崔珍源, 「陶山十二曲攷(3)」, 『人文科學』14, 成均館大學校 人文科學研究所, 1985, 5~13쪽.
- 崔珍源, 『國文學과 自然』,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77.
- 최현재, 「도산십이곡의 창작 의도와 ‘溫柔敦厚’의 의미」, 『한국문학논총』39, 한국문학회, 2005, 169~195쪽.
- 한형조, 「幽貞 혹은 유교적 은자의 길」, 『퇴계학보』111, 퇴계학연구원, 2002, 145~194쪽.
- 한형조, 「李滉의 陶山十二曲」, 『한국의 고전을 읽는다』2, 휴머니스트, 2006.

투고일 : 2011년 12월 31일, 심사 : 2012년 1월 16일~ 2월 13일, 게재확정 : 2월 14일

<Abstract>

## Reviewing the implications of Dosansip-igok

Hwang, Byeong-ik

Meanwhile read superficially Dosansip-igok's verses again, results can be summarized like this. Dosansip-igok's eonji(言志) 3 "to say that the Unsophisticated wind(淳風) died is truly false" contents that "seonbi do not seek a government position, sages of the world should pursue higher studies". Eonji 4 'I remember leaving for a more beautiful one person' means that Ideal munwang Zhou era as a model, who has good mind of benefited to the people and the servants are equipped to obtain the trust of the thick of political ideals and hope that holds. Eonji 6 "How much more 'fish jumping kite flies'(魚躍鳶飛), 'heaven shines bright cloud shadows'(天光雲影) emphasis that nature of the earth, and the mysterious origins of the universe to find profound sense, for no continuous inquiry and reflection should strive to learn his way.

In Eonhak(言學)2 "We have bright eyes and ears, we should not live as deaf and blind.", the 'bright eyes and ears'(耳目聰明男子) means profound knowledge in the world can realize who has been granted, albeit a small feat"(so-ong(邵雍) "gyeokyangjip(擊壤集), the mission emphasized the responsibility and said as intellectuals. Hence, 'Do not live as deaf and blind' means that If a person does not work on a regular basis to study and eventually become like blind people say that your long bordered said. In other words, people who want to learning and polishing the endless quest to seek truth through the justification, always bright and

wise in his own world of knowledge should be emphasized that the said.

Eonhak 5 "we would not be limited time to live greener," the Holy Ghost or the season in January does not change the properties of earth lasting nature, as a purely human being has been granted Generally a good heart that seek to maintain the body is stressed.

Generally Dosansip-igok eonji six contains that seonbi ran academic and living eco-friendly life concentrating on self-discipline. Another virtue ruled the world, the king and his servants and political ideals and profound harmony between reason and to try to enlighten the pale scholar awards are presented. In other words, two ahead of a government post office seonbi pursuit higher than two should focus on the academic world to deepen and orientation holds that the Party. After the 6 'eonhak' "The man must learn to seek the wisdom to have a position, ie, good nature, an attitude of wisdom and enlightenment, devoted to steady" academic intellectuals as such terms have to be emphasizes responsibility and commitment.

Key words : Toegye, Dosansip-igok, eonji (言志), Willing to have, eonhak (言学), Attitude toward learning, sunpung(淳風), A good wind research, pimiilin(彼美一人), munwang(文王), Peaceful and prosperous, attention wise man(耳目聰明男子), Wisdom, mangosangcheong(萬古常青), Effort does not change, Natural state, the way of the scholar